

바깥물질 설움 노래에 담다

<3부> '잠녀를 만나다' <146> 출가 해녀의 노래

등록 : 2009년 11월 18일 (수) 09:44:55
최종수정 : 2009년 11월 18일 (수) 09:44:5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안덕면 대평리 잠녀들

바깥물질 잠녀들의 구전 노래 추측 최근 작사·작곡자 확인
대평리의 자존심으로...해녀 노래 공연 통해 계속 전승키로

출가해녀의 노래

이날저날 날가려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네가네 육지가네
고향산천 뒤에 두고
정든사람 이별하고
부모형제 이별하여
버스타고 연락선타고
잠시나마 고향떠나
돈벌러 떠나가네
떠나가는 우리인들
오죽이나 속상하여
인간세상 슬픈일이
이별인줄 왜 모를까

이별 중에 생이별로
이런곳이 어데라고
날도설고 물도선땅
누굴보아 오고가리
불쌍할사 우리해녀
요때한번 못놓고서
손가락질 받아가며
이런고생 하는 신세
슬프구나 해녀몸이
푸른바다 지붕삼고
칠성판을 등에 지고
혼백상지 옆에차고
한손에는 빗창들고
한손에는 호미쥐고
석질낙질 깊은 물에
물숨참고 들어갈제
저승도가 아니던가

간장간장 열두간장
열두간장 다죽일 때
테왁짚고 물에떠서
생각생각 고향생각
생각생각 부모생각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줄같이 보고싶어
눈에송송 귀에 쟁쟁
고향부모 간절하여
내설움에 내가울고
내신세에 한숨쉬는
해녀몸이 한이로다

높고 푸른 청청하늘
무심히도 바라보니
우리고향 향하여서
외기러기 날아가네
날아가는 저기러기야
우리고향 가거들랑
우리부모 앞에게서
우리소식 전해다오



▲ 사진 왼쪽부터 조연화 잠수회장, 임춘열 할머니, 정춘지 할머니.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 없었다”며 50년전 불렀던 출가해녀 노래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바깥물질의 고단함 담아

'개척'으로까지 비유되는 잠녀들의 바깥물질을 억척스러웠던 만큼 고단했다.

점든 고향과 부모형제 옆을 떠나는 것이라면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바깥물질은 며칠씩 배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고 길게는 반년 가까이 외지 생활을 견뎌야하는 힘든 과정이었다.

배 위에서 목숨이 오가는 위기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타향 생활의 고달픔도 잠녀들은 노래로 풀어냈다.

'해녀노래' 소재 중 바깥물질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노를 저어갈 때 부르는 '햇노래'라는 점도 있지만, 잠녀들의 삶에서 바깥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잠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불리다가 사라졌던 '출가 해녀의 노래(가제)'도 바깥물질에 나선 잠녀들의 사연과 힘들었던 생활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지난 2007년 안덕면 대평리 박복자 할머니(66)의 기억에 의해 채록됐던 이 노래는 이 후 '출가 해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다시 태어났다.

잠녀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노래는 당시 대학에 다니던 고 이영근씨(2008년 작고·향 76세)가 직접 작사·작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이영근 선생은 안덕면 대평리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사정으로 전주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생활했다. 한국전쟁으로 다시 고향 제주에 와 제주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평교와 안덕교 등에서 30년 가까이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지난해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도 이 노래를 기억했다.

이씨의 부인 고송자씨(69)는 "당시 소금물로 밥을 먹을 정도로 힘들 생활을 하면서 더 힘들게 물질을 하는 잠녀들을 지켜보내 만든 노래라고 들었다"며 일부 잘못 정리된 가사를 귀찮해했다.

이씨는 젖동냥으로 자라며 지역 잠녀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는데다 마음에 뒀던 잠녀가 바깥 물질 나가는 길에 이 노래를 지어 연서(戀書)를 대신해 건네 줬다.

임춘열 할머니(72·안덕면 대평리)는 "20살 무렵 바깥물질을 나가는 길에 불렀던 기억이 어제 같다"며 "신이 나게 노래를 시작했다가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아 나중에는 슬픈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17살부터 바깥물질을 했다는 정춘지 할머니(73·#)도 "이 선생(고 이영근)이 한밭(안덕계곡 근처를 일컫는 지명)에서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바깥에 나갈 때는 습관처럼 자주 불렀는데 몇 년 안돼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임 할머니는 "직접 바깥물질을 했던 잠녀들은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며 "손가락질 받아가며 힘들게 고생하는 사정을 말로 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노래로라도 불러야지"하고 지난 기억을 숨을 토하듯 내뱉었다.

#우리 마을 노래로 남다



▲ 故 이영근씨

연모의 정을 담은 노래라고는 하지만 이씨가 직접 바깥물질을 나선 잠녀들을 쫓아 타항살이를 자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가장 가까워서 잠녀들을 살펴보고 그 감정을 담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안덕면 대평리의 잠녀들 중에는 그 노래의 배경과 함께 가사를 기억하는 노 잠녀들이 적잖다.

조연화 대평리 잠수회장(66)은 "다른 잠녀들이 부르던 노래를 어깨너머 배웠는데 이렇게 작사·작곡하신 분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모두에게 영광이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대평리 잠녀들의 노력으로 만회되고도 남는다.

대평리에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3개월동안 해녀노래 공연이 펼쳐졌다. 잠녀들이 주축이 돼 한 목소리로 뱃노래며 출가해녀의 노래를 불렀다. 내년에는 5월쯤 공연을 시작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김창수 대평리장은 "대평리 출신이 만들고 대평리 잠수들이 부르는 노래인 만큼 대평리 노래나 다름 없다"며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원래 가락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점이 아쉽지만 더 이상은 잊혀지지 않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이장은 또 "당시에는 마을 잠녀 중 70% 이상이 바깥물질을 했었다"며 "공연 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작업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해녀노래 전수교육을 받는 잠녀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김대생 교육체육문화부장·고미 편집부차장·해녀박물관